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0주일
제37권 39호(가해) 2017년 8월 20일

[묵상]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간절한 믿음

항상 많은 병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
측은한 마음에 모두 고쳐주셨다.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강아지에 비유.

이방인이라고 왜 이런 박대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
너무 치사하고 야박하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을까?

우리들에게 간절한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다.

믿음은 보편적인 것이다.

구원도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내가 비록 내세울 것이 없어도,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 569-3940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7,8월 방학 미사없음 오전 11:00

주간행사동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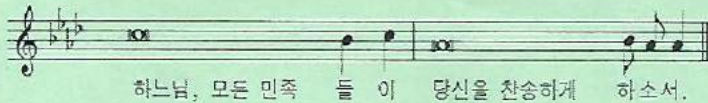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생)홍정림 요안나,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주일 낮 미사	(연)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우일환 모이세, 석순영 아네스, 김진엽 마리아, 김정례 수산나, 강태람, 김요셉 & 윤마리아 & 김요한 & 김바오로 & 도밍고 & 헬레나, 연옥영혼, 허요한 & 허 베로니카, 김준경 요한 & 김정옥 요셉 & 최천옥 딸가리다, 엄정자 분다, 이병찬 & 이득수, 장성여, 박대수 나자로 (생)손석 스테파노, 김채홍 마리아, 최동한 안드레아, 김명 베드로 가정, 조혜윤 데레사 & 조성윤 클라라 가족, 송명환 베드로, 이원형 프란치스코 가정, 노천수 프란치스코 & 노영자 마리아, 한춘선 루시아, 최승원 아나스타시아, 엄크리스 베르나르도, 김지훈 대진 안드레아, 김 마누엘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56,1,6-7

화답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1,13-15.29-32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마태오(Matthew) 15,21-28

영성제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III. 생물 다양성의 감소

35. 모든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토양, 물, 대기에 미치는 영향에는 관심을 두면서도, 마치 동식물 종의 소멸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새 플랜테이션, 특정 지역에 울타리 치기, 수자원 저장 뚝 건설, 이와 유사한 개발과 같은 것은 자연 서식지를 차지하고 때로는 파괴하여 동물 개체군들이 더 이상 이동하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일부 종들은 멸종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최소한 이러한 계획들의 영향을 완화시키고자 생물학적 회랑 지대 조성 같은 대안들이 있지만, 극히 일부 국가들만 그러한 배려와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특정 생물 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그 종들의 감소와 그에 따른 생태계의 불균형 방지를 위한 그것들의 번식방식연구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36. 생태계보호를 위하여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쉽고 빠른 금전적 이익만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누구도 생태계보존에 참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물종이 소멸되거나 심각한 해를 입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떠넘긴 채로 인적 이익만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심각한 불의 앞에 침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7. 일부 국가들은 육지와 해양에서 특정지역과 장소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그 모습을 변형시키거나 원상태를 훼손시키는 모든 인위적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호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토종생물 종이 풍부한 지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 생태계에 매우 중요하기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저수지라서 다른 생명체들의 안식처가 되기에 그러한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08	208	228
봉헌	268	268	259
성체	287	287	306
파견	249	249	218

믿음으로 초대받은 가나안 여인

복음을 읽으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야 할 터인데, 종종 복음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도 그렇습니다. 애써 당신을 찾아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모질게도,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까지 비하하며 그 청을 뿌리치시는 예수님의 매정함에 순간 아연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단지 이 여인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유로? 실상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두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이 바뀌어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게 된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중, 이 사건을 통해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곧, 처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이 그저 치유의 기적만을 바랐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란, 어떤 혈연이나 지연에 근거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라는 영적인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녀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이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한 모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빵을 주는 것이지, 빵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경우는 다르죠. 누구든 빵을 주는 이가 곧 주인입니다. 강아지에게 빵을 주듯이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선물한다는 것은, 곧 그 기적을 미끼로 사람들을 꾀어내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게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하듯이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눈먼 양식이 아니라, 당신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자,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로운 구원이 현실이 되어 그녀에게 펼쳐졌고, 그녀의 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린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여 기적을 베푸시게끔 설정된 기적 차판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가 된 이들의 아픔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가십니다. 기적은, 아버지의 사랑이 자유로이 표현되는 한 방식일 따름입니다.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어떤 서글픔

자주 양치질하지만
치아는 점점 누레지고
냄새도 심해지는 거 같고.
한 때 젊어 봤으니 늙는 거야 괜찮은데
젊었을 때보다 더 자주 씻고도
냄새 나는 건 좀 억울하군요.
늙는 게 내 잘못이 아님에도
이래저래 눈치 보게 됩니다.
별다른 욕심 없이 그저
단정하고 깔끔하게 늙고 싶었는데
이제 보니 이거야말로
큰 욕심인 듯 합니다.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이번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은혜 클라우디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해설자	조병준 폴로렌시오	송인선 안젤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박혜경 레나타	박혜경 레나타	정인옥 아오스딩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1반	제물봉헌자			토시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주일학교 방학기간 동안 조정되었던 학생미사가
9월 3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 미사 시간 : 아침미사 7:30, 학생미사(영어) 9:30,
낮 미사(오전) 11:00

◆주일학교 신입 복자단 입단식

- 일시: 오늘주일 (20일) 11시 미사 중
- 대상학생: Cathy Law, Michael Park,
Angela Park, Amy Lee, Yumi Lee

◆9월20일(수)은 성 김대건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본당 축일입니다.

이날 대축일 미사를 9월17일 주일로 이동해서 봉헌합니다.
본당의 날을 맞아 각 구역별 연도 대회를 개최합니다.
푸짐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든 구역원 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9월 17일 (주일), 미사 후
- 대상: 백삼위 한인 성당 모든 교우

◆백삼위 한인성당 성소후원회 발족 모임

백삼위 한인 성당 성소 후원회는 사제, 수도성소를 계발 육성하
고, 사제, 수도성소자 양성에 따른 후원및 회원 공동체를 통한
사도직을 위한 단체입니다.

사제, 수도성소자들이 훌륭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성소후원회
활동에 많은 신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바랍니다.

- 일시: 오늘주일 (20일) 11시 미사 후
- 장소: 강당
- 문의: 남 성철 베네딕도 ☎ (310)408-1443

◆요셉회 8월 정기모임

- 일시: 오늘주일 (20일) 11시 미사 후, 맛있는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백삼위 캠프

- 일시: 9월 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4일(월) 10시 30분
- 대상: 백삼위 한인 성당 교우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잔디 밭
- 참가비: 1인 기준, \$5
- 신청마감: 8월 27일 오전 11시까지
- 신청 접수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정판영 레오 (310)414-7655
-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본당 사무실)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연락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cecks@gmail.com
☎ (213)700-9399

◆주일학교 / 한국학교 9월10일(주일)부터 개학합니다.

◆성당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당 마당 서남쪽 끝에 위치한 쓰레기 처리장에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통이 두 개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왼편 파란 통에
일반 쓰레기는 오른쪽에만 구분하여 버려 주십시오.

◆성요셉 천주교아버지학교 제 6기 등록안내

- 일시: 2017년 9월 10일, 17일, 24일, 10월 1일
총4회 매주 오후 2시
- 장소: 성 라파엘 한인 천주교회
12366 Rosecrans Av. Norwalk, CA 90650
- 등록비 \$150
- 문의: 오재민 바오로 ☎ (562)505-8070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8월은 한달 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은별 국세찬 권태만 금영도 김선영 김씨니 김원호 김은학 김정엽 김중훈 김진우 김찬구 김택수 김형순 민경근 박상준 박음전 박인식 박정자 반비오 변복순 신경훈 안태갑 엄세중 윤희동 이은경 이일길 이재철 이정분 이종선 이종필 정광미 정판영 조소영 한창주 한혁수 황지영 황철수 익 명 한길선례	성전헌금	국세찬 권태만 금영도 김씨니 김정엽 김찬구 민경근 박상준 박음전 박인식 박정자 반비오 변복순 신경훈 안태갑 윤희동 이일길 이정분 정판영 한창주 한혁수 황지영 한길선례
	합계: \$3,910		합계: \$1,430
주일미사헌금: \$2,044		2차미선헌금: \$ 4,836	성소후원 점심판매: \$ 586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주일학교 방학기간 동안 조정되었던 학생미사가
9월 3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 미사 시간 : 아침미사 7:30, 학생미사(영어) 9:30,
낮 미사(오전) 11:00

◆주일학교 신입 복자단 입단식

- 일시: 오늘주일 (20일) 11시 미사 중
- 대상학생: Cathy Law, Michael Park,
Angela Park, Amy Lee, Yumi Lee

◆9월20일(수)은 성 김대건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본당 축일입니다.

이날 대축일 미사를 9월17일 주일로 이동해서 봉헌합니다.
본당의 날을 맞아 각 구역별 연도 대회를 개최합니다.
푸짐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든 구역원 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9월 17일 (주일), 미사 후
- 대상: 백삼위 한인 성당 모든 교우

◆백삼위 한인성당 성소후원회 발족 모임

백삼위 한인 성당 성소 후원회는 사제, 수도성소를 계발 육성하
고, 사제, 수도성소자 양성에 따른 후원및 회원 공동체를 통한
사도직을 위한 단체입니다.

사제, 수도성소자들이 훌륭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성소후원회
활동에 많은 신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바랍니다.

- 일시: 오늘주일 (20일) 11시 미사 후
- 장소: 강당
- 문의: 남 성철 베네딕도 ☎ (310)408-1443

◆요셉회 8월 정기모임

- 일시: 오늘주일 (20일) 11시 미사 후, 맛있는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백삼위 캠프

- 일시: 9월 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4일(월) 10시 30분
- 대상: 백삼위 한인 성당 교우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잔디 밭
- 참가비: 1인 기준, \$5
- 신청마감: 8월 27일 오전 11시까지
- 신청 접수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정판영 레오 (310)414-7655
-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본당 사무실)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연락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cecks@gmail.com
☎ (213)700-9399

◆주일학교 / 한국학교 9월10일(주일)부터 개학합니다.

◆성당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당 마당 서남쪽 끝에 위치한 쓰레기 처리장에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통이 두 개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왼편 파란 통에
일반 쓰레기는 오른쪽에만 구분하여 버려 주십시오.

◆성요셉 천주교아버지학교 제 6기 등록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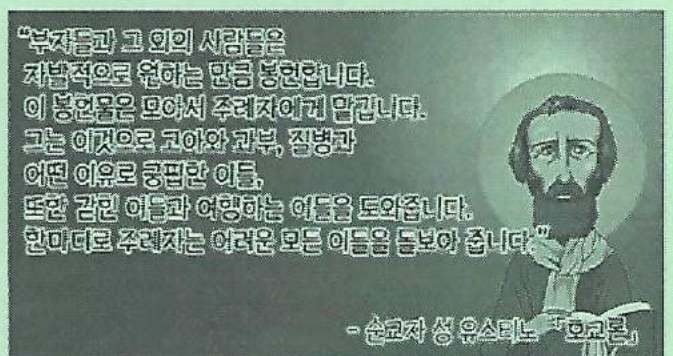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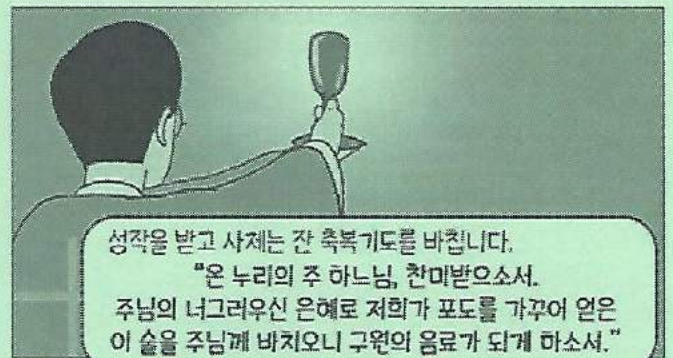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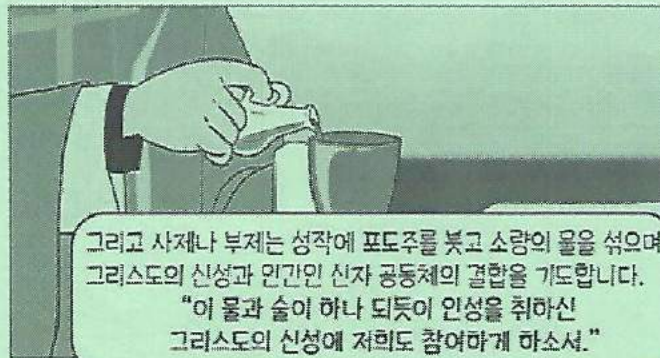
- 일시: 2017년 9월 10일, 17일, 24일, 10월 1일
총4회 매주 오후 2시
- 장소: 성 라파엘 한인 천주교회
12366 Rosecrans Av. Norwalk, CA 90650
- 등록비 \$150
- 문의: 오재민 바오로 ☎ (562)505-8070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8월은 한달 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은별 국세찬 권태만 금영도 김선영 김씨니 김원호 김은학 김정엽 김중훈 김진우 김찬구 김택수 김형순 민경근 박상준 박음전 박인식 박정자 반비오 변복순 신경훈 안태갑 엄세중 윤희동 이은경 이일길 이재철 이정분 이종선 이종필 정광미 정판영 조소영 한창주 한혁수 황지영 황철수 익 명 한길선례	성전헌금	국세찬 권태만 금영도 김씨니 김정엽 김찬구 민경근 박상준 박음전 박인식 박정자 반비오 변복순 신경훈 안태갑 윤희동 이일길 이정분 정판영 한창주 한혁수 황지영 한길선례
	합계:\$3,910		합계 : \$1,430
주일미사헌금 : \$2,044		2차미션헌금 : \$ 4,836	성소후원 점심판매 : \$ 586



기도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마태 15,25)

오늘 복음 속 가나안 부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지요? 기도는 숨 쉬고 밥 먹고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능에 상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매일 기도하는 건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요. 기도는 우리를 정화하고 유혹에 맞설 힘을 줍니다. 또 기운을 북돋아 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며 대체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요.

하느님을 잊고 그분에게서 도망치며 자신을 숨기려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늘 우리가 당신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그분은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야기할 사람 없어 외로울 때도 우리 곁에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흔히 기도를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지요. 탈출기 3장은 기도가 무엇일 수 있는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느님은 모세와 치열하게 대화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드렸으며 마침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기도 중에 사명을 받았고 기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탈출 33,11)는 말씀을 읽을 때면 부러운 마음에 모세처럼 기도하고 싶어지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삶 자체가 탁월한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사막에서 유혹을 받을 때나 제자들을 뽑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자신을 하느님께 맡길 따름입니다. 참, 기술을 배우듯 기도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기도 잘하는 비법이나 지름길도 따로 없고요. 기도는 오직 기도함으로써만 익힐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정성껏 말이죠. 명동본당 지하성당 입구에 이런 글귀가 붙어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도 기도할까요? 가나안 부인처럼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는 우리를 정화하고 유혹에 맞설 힘을 줍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8월13일 자 정답: ①-⑥, ②-⑧, ③-⑦, ④-⑤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성경 속 동식물」 31 가난한 이들의 양식 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대목이 민수기에 나온다.(민수 11,5 참조)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일상 식품이었던 오이를 그리워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예레미야는 우상을 오이밭의 허수아비에 비유하기도 했다.(예레 10,5 참조)

우상들은 외적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 내용과 실속이 없다는 극단적 표현이다.(바룩 6,69 참조)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직급/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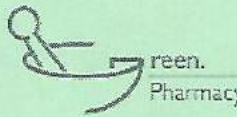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형식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4228 Crenshaw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플라자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